

해외출장(글로벌공항) 요약

부서 : 도시기반본부

자료제공 : 김인희

작성일 : 2024년 4월 8일

게시요망일 : 2024년 4월 15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이스탄불, 샤를드골, 취리히, 뮌헨공항 출장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장 배경

- 인천공항 미래비전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 선도공항 사례조사를 위하여 공항공사 운영진과 비전위원회가 출장.
- 신규터미널 운행, 허브공항 복합개발 조성사례, 주변 융복합 산업단지와의 연계, 스마트공항 운영사례 등 사례지를 방문하고 조사할 예정.
- 인천공항공사가 서울시 장기비전과 공간계획 수립에 관한 경험과 자문을 위하여 해외출장 참여를 요청함.

○ 출장 시사점

세계는 지정학 시대에서 기정학(Technopolitical)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허브공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통통신 및 기술혁신에 따라 초음속 항공교통 등 신교통수단의 출현으로 전 세계는 글로벌 일일생활권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허브공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단순한 인프라로서의 공항이 아니라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도시(Aitport City) 개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글로벌 허브공항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탄불공항은 세계 최대규모의 양적인 공항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 년전 국가차원의 투자로 글로벌 선도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다. 공항과 연계하여 업무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 비공항기능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도심과의 연계성이 여전히 취약하여 배후 잠재력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파리 드골공항은 미래 글로벌 이슈인 탄소제로이슈를 선점하여 수소공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24 파리 올림픽과 연계하여 UAM등 미래 도심항공의 테스트베드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미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운영사에는 여러 민간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 인근의 호텔 및 관련시설이 미래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보이고 도심까지 교통연결성이 개선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취리히 공항은 공항도시를 조성하는데 가장 성공사례로 보여진다. 터미널과 연결하여 마이트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여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한 대학기능, 의료기능, 관련 산업 등이 클러스터로 입주하여 미래 공항도시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심까지의 접근성도 뛰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공항 및 배후도시 취리히의 규모가 작아 글로벌 허브공항이라기 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평가된다.

뮌헨공항은 10여년 전부터 Lab Campus라는 혁신공항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뮌헨공대와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추창기라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뚜렷한 비전과 혁신적인 공간으로 향후 도약의 잠재력이 있어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공항규모가 유럽내 공항으로서 기능하는 정도여서 글러블 허브로 도약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유럽과 아시아 글로벌 허브공항을 방문한 결과 공통점은 첫째, 모든 공항이 주변과 연계한 에어포트 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둘째, 탄소제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상징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늘어나는 여객 및 물류수요에 대응하여 공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2002년 개항 초반 신기술 도입과 스마트기능 적용, 글로벌 규모의 시설등 글로벌 탑 공항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최근 유럽 및 아시아 허브공항의 신규진입으로 경쟁력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차원의 새로운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공항 주변을 글로벌 인재, 물류, 정보가 모일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항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인천공항과 주변 도시 및 지방도시까지의 연결을 초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광역인프라의 투자가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공항공사 뿐 아니라 정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협력하여 조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탄소배출의 원인인 항공기 유류활용을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도 필요하다.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미래공간연구본부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인희
(02-2149-1044)